기를 든 자

(이사야 62:10-12)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상상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자리입니다. 누나 미리암에게 두고, 멀리서 기다리라고 요게벳이 말했고, 공주가 와서 목욕할 때 발견하면 유모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나를 소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획을 하여 둔 것과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것은 다릅니다. 요게벳은 답 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 것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답은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스스로는 그 저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왔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 깊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악한 짓만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없을뿐더러, 나올 생각조차 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면 답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고, 정의되고 난 후 그리스도의 3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완전히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평생의 답이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망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니며, 원죄 모르고도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영접 이후, 그 사람에게서 복음 가진 인생을 사는 것을 기대하긴 힘들 것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망대로 세워져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원죄가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자신도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기 힘들 것입니다. 만일 원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평생의 언약이 되고, 평생 그 복음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살아서 망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접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복음을 알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원죄가 있고,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는 언약 잡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기도에 생명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의 기도를 합니다. 틀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 사이에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6:33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신자가 많지 않는 이유는 그 영적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확신하면 그리스도는 평생 언약이 되고, 망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고, 확인하고, 답을 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죄를 확실하게 알게 한 이후에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잘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원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아는 만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1. 기를 든 자

성경이 지명한 7 포인트의 마지막 사람이 기를 든 자입니다. 7 포인트는 하나님 하시는 일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포인트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처음 지명된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6:13에 나왔습니다.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언약의 여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순례자'입니다. 그냥 순례하는 것이 아닌 언약의 순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사람의 전도와 선교는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을 정복해서 세상을 살립니다. 남은 자는 순례를 통하여 정복자가 됩니다. '정복자'는 살리는 자입니다. 사탄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정복은 사탄과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권세 또한 깨뜨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선교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결된 50명의 남미 제자들과 6,000명의 성도들은 중요합니다.
시대적인 5천 종족 운동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원입니다.
우리에게 출발다운 출발을 하라는 메시지로 저는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할 교회이고, 그 증거를 볼 교회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잡은 말씀이 저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언약을 따라올 자가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성경적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중 복음을 듣지 않은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나라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악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복한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제자가 곧 남은 자 운동이고, 후대에 연결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흩어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1:19-21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역사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시대였고,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20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21절).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읽으면 1초 만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여기에 멈춥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들처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중심에 이름 없는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6에 하나님의 파수는 영적인 파수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언약 잡은 기도로 지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교회와 나라와 시대를 지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는 살아 있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 정탐꾼이 기록의 첫 번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명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들어간 2명의 정탐꾼, 거기에는 준비된 제자, 라합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본 자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주님이 모든 준비를 끝내심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네게 주었노니' 이 말씀에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에 보면 세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병사 중 하나가 꿈을 꿨는데, 다른 병사 하나가 그 떡이 기드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고,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탐꾼입니다. 현장을 보고, 영적 상태를 보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보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와서 방향을 정하고, 영적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 포인트 중 하나로 잡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 자가 정탐꾼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전도, 선교 중에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포인트는 '기를 든 자'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하나님께 그 길이 뭔지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를 든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교는 멀리를 보고, 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로를 수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로는 하나하나 세밀하게 문을 찾고, 열고, 그리하여 준비된 백성들이 오도록 길을 닦는 것입니다. 또한 이유 없는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므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회를 만들고, 이벤트도 기획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를 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므로 준비하신 응답도 누리고, 예비하신 제자도 만나고, 그렇게 크게는 흐름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응답과 전도 문의 근원을 든든히 하고, 훈련과 2부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므로 교회와 함께 가고, 그리하여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면 될 것입니다. 허공에 뜬 큰 것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작은 것을 세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면 그것이 길을 닦는 것이 되고, 대로로 바뀔 것이며, 그것이 시대 앞에 기를 드는 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현장 한 현장을 차분한 가운데 성실하게 기도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기도하는 자세가 됩니다. 기도가 없고, 질문이 없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할 순 없으나, 아무리 거룩한 일이어도 하나님께는 하고 싶으신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고유의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겠다는 100%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100%의 자세입니다. 저는 몇 과정을 지나며, 회개도 많이 하고 있고, 너무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고쳐야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다 지나고 보면 너무도 감사함 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뒤집어 하나님의 플랫폼과 발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중에 그 방향에 대하여 7 포인트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사건에 필요한 자를 불러 시대의 중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그 단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중요한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종합되어 한 그림으로 다가온 것이 7 포인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인생 방향일 것이며, 중요한 응답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깨닫고,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